

도·14개 시·군, 고물가 대응 '머리 맞대'

각 시군에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협조 요청·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논의 등... 서민경제 안정 대책 마련 나서

전기·가스·수도료 상승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가운데 전북도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1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고물가 대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시군 경제부서장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공요금 현실화 압력이 존재함에도 공공요금이 도민 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에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북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시가스 및 시내버스 요금은 용역 중이거나 용역을 앞두고 있어, 조정 과정에서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한 인상이 있을 경우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군이 관리하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급격한 동결을 이미 인상한 곳에는 감면을 요청했다. 또, 공공요금과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시·군이 가지고 있는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능동적 의지도 보였다.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올해는 각 시·군별로 지원에 나서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이 3월 중으로 마련되는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전북도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국비 교부액도 포함됐다.

2023년 전라북도 경제정책방향도 안내했다. 올해 민생경제 활성화는 △기업유치 분야 △기업지원분야 △창업지원분야 △일자리창출 분야 △소상공인지원분야 △지역상권분야 △사회적경제분야 등 7개 분야로 3조 원의 투자예정금액, 5,000명

의 고용예정인원, 수출액 90억 달러 달성 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전라북도 각 시군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을 견인하지 않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7일에는 전북도와 민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고물가 대응 및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관계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기업하기 좋은 시·군 선정

정읍시·임실군 '최우수' 선정

전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기업하기 좋은 시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정읍시와 임실군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도는 기업지원정책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각 시군에서 시행 중인 기업지원 우수사례 등을 공유·확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부터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를 추진해왔다.

산업규모 등을 고려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그룹별 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인구수 7만 이상 그룹에서는 1위 정읍시, 2위 남원시, 3위 익산시, 4위 인주시, 5위 부안군, 6위 무주군이 각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정읍시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임실군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지원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인구수 7만 이상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정읍시는 모든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기업애로해소 전담창구 설치 및 현장기동반 운영, 기업동향 파악, 중소기업 지원 국가

예산 발굴,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는 최고점을 달성했다. 또한, 2022년부터 기업애로 및 고충처리 1담당제 시행으로 17개에 공무원 1명을 매칭해 기업 애로사항 전담 창구제를 운영함으로써 친(親)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인구수 7만 미만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임실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번 실적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정읍, 남원, 익산, 임실, 부안, 무주)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이 수여된다.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그룹별 1위 2,500만원, 2위 1,500만원, 3위 1,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전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가 기업애로 전담 창구 설치,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운영 등 각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해 전북지역 전반에 걸친 기업 경영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옥 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차지한 정읍시는 모든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기업애로해소 전담창구 설치 및 현장기동반 운영, 기업동향 파악, 중소기업 지원 국가

/김재훈 기자

전북도, 농업농촌·해양 분야 특례 발굴에 역량 집중

농업농촌·해양 분야 특례 발굴 위해 전문가들과 소통의 장 마련 농생명산업 수도 실현과 새만금 도약·균형 발전특례 발굴 논의

전북도는 14일 전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해양 분야 특례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조직해 국제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할 행정 자치와 재정 분권,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특례 발굴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조직·사무·재정·교육 △투자유치·민생경제 △신산업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환경 △안전·복지·소방 등 7개 분야, 4천 개 이상의 특례 발굴을 목표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농촌·해양분야 분과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두 차례 분과 회의를 통해 강원, 제주 등의 특례법을 검토하고 전북에 적용할 수 있는 2건의 특례를 발굴했다. 도 자체적으로도 24건을 추가 발굴해 △새만금농생명융치 △농촌개발 △스마트농업 △식품·기업 △축산방역 △새만금개발 △해양항만 △수산정책 등 총 8개 분야 45개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농생명융치, 기업유치 활성화, 어촌어항 개발,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정부 권한위임 등의 현재까지 제안된 특례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전북도는 14일 전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해양분야 특례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하는 등 전라북도의 장점을 더욱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농업농촌·해양분야 분과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과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정기

적으로 개최하고, 전북도에 도움이 될 만한 특례 규정들도 발굴해 중앙 부처의 많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게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14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나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산·학·연, 데이터산업 전략 모색

인공지능·데이터산업 등... 디지털 전환 대응 도 자체 방안 구상

전북도가 기업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도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방안과 새만금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 등을 세밀하게 짜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14일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세미나실에서 '인공지능·데이터산업 등 산업 디지털전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최근 정부의 디지털 관련 정책인 인공지능 일상

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1.18)' 등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전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열띤 토론을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는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이종서 데이터산업 정부 정책 및 대응 방안 발표에서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서 사회·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핵심동력으로 공공미디어 이용 확대와 데이터 인성교육,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가맹정보 결합 전문기관 등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유치하고 데이터 융합 인재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테우스시스템즈 류기훈 대표가 데이터센터 분산화 정책과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을 분석하면서 새만금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낮은 자연재해 위험,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새만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및 단지 집적화를 통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세종 경영자문 박상우 수석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및 대응방안에서 전라북도의 디지털 혁신 인프라 및 정부 여건 조성, 지역 주력산

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강소기업 육성, 디지털 인재 양성과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활용지원 및 기술지원을 통한 생태계 구축으로 '디지털 혁신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협회 박은지 전문위원은 정부의 산업 인공지능(AI) 내재화 전략 및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먼저, 중앙정부의 산업 인공지능(AI) 내재화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AI) 내재화가 필요한 기술의 지역공급기업 육성, 지역 특화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 인공지능(AI) 인력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재훈 기자

도, 건강한 먹거리 공급 간담회 개최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설명·시군센터 간 교류 방안 논의

전북도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과 14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나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도내 시·군센터 간 교류를 위한 전라북도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14개 시군센터 센터장 및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

으며, 전라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 및 사업추진계획과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시·군센터 교류방안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센터별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종합토론도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제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권역교수 및 권역교수
- 전북대학교 언론매체 면접담임교수
- 스피치사격서원 집행위원장
- 한스스피치 동년월회 원외회장
- 전북언어교육원 및 기획, 단과 특성교수
- KBS TV아침매일, MBC TV, JT, TBS 90분 및 강의자
- 스피치 강연가로서 < 심비성담사 >
- 전주매일 부시장
- 서식 '365스피치영어유니버시티' '나쁜 세우, 빌, 빌' '스피치 101' 등
- 스피치 저서, 강연, 방송, 시낭송, 시낭송시 낭독, 시낭송, 시낭송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임)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관과정이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